



이스라엘은 인종학살 중단하라!

가자지구 라파 공격 규탄한다!

2·17 국제 행동의 날 대행진에 함께합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최대 피난민 집결지인 라파를 공격하고 있다.

가자지구 남부의 라파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안전 지대”라며 팔레스타인인들을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 넣은 지역이다. 라파엔 현재 음식, 물, 의약품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14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밀집해 있다. 이는 가자지구 주민의 65퍼센트에 달하는 수로,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이전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이제 더는 갈 곳이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은 이미 폐허로 변한 가자지구에서 인종 학살을 철저히 밀어 붙이겠다는 뜻이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의 극우 요

인들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종청소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인간 짐승”으로 일컬으며, 가자지구 주민들을 이집트 등 인근 국가로 집단 이주시키겠다고 한다.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설립되면서 시작된 팔레스타인에 대한 식민 점령과 인종 청소를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넉 달 동안 2만 8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학살됐고, 이 중 75퍼센트는 여성과 어린이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의 건물 85퍼센트가 파괴됐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가 2022년 수준으로 재건하려면 7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가자지구 내 5세 미만 아동 33만 5000명이 심각한 영양실조와 굶주

림의 위협에 처해있다.(국제 아동보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

학살 지원 중단하라!

그동안 미국과 서방 정부들은 이스라엘의 편에서 왔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막대한 자금, 무기, 외교적 지원에 힘입어 학살을 벌여 왔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말로는 ‘민간인 피해를 우려한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우리의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며 인종 학살이 벌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있다. 미국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생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 자신이 예멘, 이라크 등을 폭격하며 중동에서의 전쟁 위험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야만과 미국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더라도 팔레스타인인들의 용감한 저항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지난 76년간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식민 점령에 맞서 온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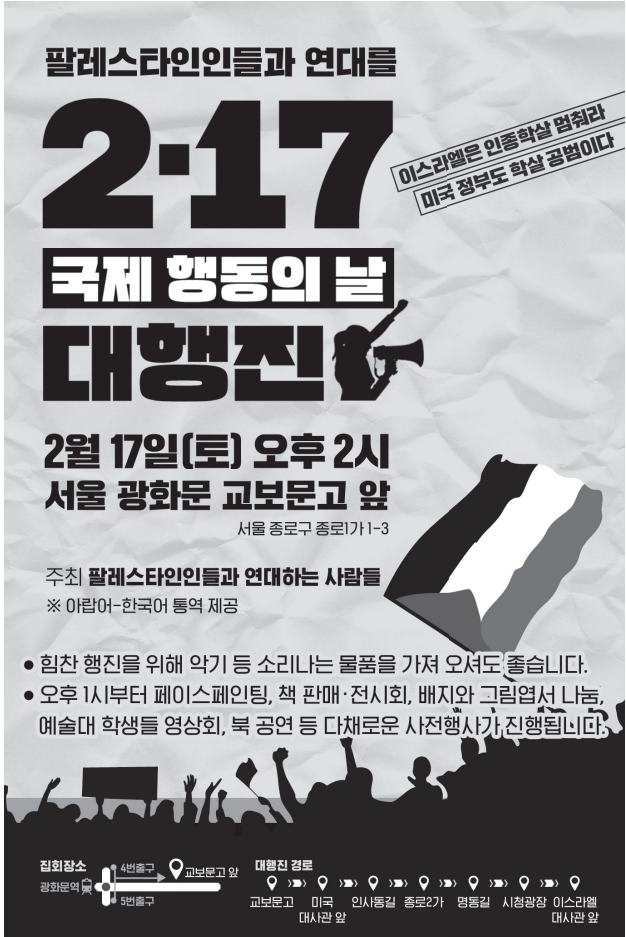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과 미국·서방의 공범 행위를 향한 분노와 항의,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3일에는 45개 나라 121곳 도시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와 행진이 열렸다. 한국에서도 10월 11일 이래 매주 재한 팔레스타인인들과 내외국인 수백 명이 집회와 행진을 벌여 왔고, 서

울뿐 아니라 부산, 인천, 수원, 울산 등 곳곳에서 연대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2월 17일 국제 공동 행동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2·17 국제 행동의 날 대행진”에 참가하자! 정의와 자유를 외치는 전 세계 양심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때, 이스라엘의 학살과 야만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2월 14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2·17
국제 행동의 날
대행진

이스라엘은 인종학살 범행자
미국 정부도 학살 공범이다

2월 17일(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서울 종로구 종로1가1-3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 아랍어·한국어 통역 제공

- 힘찬 행진을 위해 악기 등 소리나는 물품을 가져 오셔도 좋습니다.
- 오후 1시부터 페이스페인팅, 책 판매·전시회, 배지와 그림엽서 나눔, 예술대 학생들 영상회, 북 공연 등 다채로운 사전행사가 진행됩니다.

집회장소
광화문역 4번출구 → 4번출구 → 4번출구

대행진 경로
교보문고 앞 → 미국 대사관 앞 → 인사동길 → 종로2가 → 명동길 → 시청광장 → 이스라엘 대사관 앞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보내 주신 후원금은 연대 집회와 홍보 활동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재한 팔레스타인인·아랍인들과 39개 시민·사회 단체가 연명하고 함께합니다.
(2023.12.16. 현재)

웹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 010-7550-2131 | people.freepalestine@gmail.com | bit.ly/people-freepalestine